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시작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 노인 등 4개 분야... 8개 지자체에서 실시

올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노인은 4곳, 장애인은 2곳, 정신질환자와 노숙인은 각 1곳의 지자체가 맡는다.

선도사업은 각 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목록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직종 연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복지부와 행정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대상별 기본모델은 다음과 같다.

△노인 선도사업=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 지역연계실'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 안내장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신서비스와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선도사업=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적절한 치료와 투약관리, 돌봄서비스

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중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한다. 투약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노숙인 선도사업=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치료를 돕는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이번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 한국 성평등 100점 만점에 71.5점

### 국가성평등지수 0.8점 상승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가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1.5점으로 2016년 70.7점 보다 0.8점 상승했으며,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양성평등정책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안전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분야 평가지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이다.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분야가 93.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교육·직업훈련분야 평가지표는 평균 교육 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 경험률이다.

3위는 문화·정보분야(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89.3점, 4위는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73.2점, 5위는 복지분야(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장애인 고용률) 72.8점, 6위는 안전분야(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비율) 66.0점, 7위는 가족분야(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58.9점이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분야로 29.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로 산정됐다.

교육·직업훈련, 보건, 안전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모두 2016년 도와 비교해 상승했다. 특히 의사결정분야가 2016년 26.6점에서 29.3점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 응급의료 기본계획

정부는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를 적정병원으로 이송해 사망률은 줄이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높이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수립됐다.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

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시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방향으로 한다.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며, 영역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이송 단계= 현장에서 일반인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한다. 이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응급처치 행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한다.

주혜진 기자 hjoo@

(2면에 계속)

## 2019 ICN Congress 등록안내

2019년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학술대회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회의명 : ICN Congress 2019 Singapore
- 장소 :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 주제 : Beyond healthcare to health
-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7월 2일(화)
- 웹사이트 : <https://www.icn.ch/events/icn-congress-2019-singapore>

### 1.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날 짜	프 로 그 램
6.27.(목)	- 개회식
6.28.(금)~7.1.(월)	- 기초강연 - 분야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 네트워킹 미팅 및 워크숍 - 폐회식
7.2.(화)	- 병원 등 기관 방문 (*개별 온라인 등록 시,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요람)

\*세계간호학대회는 6월 26일(수)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2. 등록안내

#### 1) 등록 신청

- 온라인 개별등록 신청  
(<https://regonline.react-profile.org/profile/ICN2019/ICN/en/login>)
- 개별 온라인 등록 후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하는 메시지 화면을 인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이메일로 등록완료가 확인된 경우라도 ICN으로부터 최종 등록 확인서(Confirmation Letter)가 도착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 등록 취소

- 등록 취소가 불가하며 환불되지 않으므로 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등록비(개별등록)

구 분	등 록 비		
	1차 등록 (2019년 2월 13일 마감)	2차 등록 (2019년 2월 14일 이후)	3차 등록 (2019년 6월 27일 이후)
간호사	550EURO (약70만3600원)	680EURO (약87만원)	850EURO (약108만7400원)
학 생	240EURO (약30만7000원)	300EURO (약38만3800원)	375EURO (약48만원)
동반자	80EURO (약10만2400원)	80EURO (약10만2400원)	80EURO (약10만2400원)

- \*등록비에 여행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1유로(EURO) = 한화 약 1,280원(2018.12.12. 기준)
- \*등록비는 EURO로 지불해야 하며, 송금 시 참가자 이름과 "ICN 2019"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에 포함된 내용 : 개막식 참석 가능, 모든 session 및 전시회에 참가 가능, 총회 가방, 총회 프로그램
- \*동반자는 개막식 참석만 가능

- \* 추후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2)2260-2517 / E-mail : [hdong@koreanurse.or.kr](mailto:hdong@koreanurse.or.kr)

牛步千里 한국콜마



##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유통관리 기업)